

음주에 따른 음성변화의 측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조형호 · 윤제한* · 김정현 · 조재식

음주가 음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 보기 위해 음주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음주와 음성과의 연관성, 음주로 인한 후두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정상적인 목소리를 가지며 성대에 병변이 없고 음주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연령은 23세(남자 : 23.6세, 여자 : 21.9세)였고, 음주량은 소주 1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음주전과 음주후 3시간까지 매 1시간마다 음성검사와 굴곡형 내시경을 이용하여 후두변화를 관찰하였고, 그때마다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알콜농도를 같이 측정하였다.

발성의 음향학적 측정을 위해 CSL model 4300B(Kay Elemetrics Corp.)를 사용하였고, 공기역학적 측정을 위해서는 Aerophone II Model 6800을 사용하였다.

음주전과 음주후의 음향분석지표의 비교, 내시경상 후두 변화의 비교, 그리고 알콜농도에 따른 각각의 변화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음주와 음성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평균 알콜농도는 음주후 1시간째 0.13으로 peak를 보이고, 그 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음주 전, 후의 음향지표의 결과를 t test로 통계처리하였다.

상기의 음성검사상 음주 전, 후 음향지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같이 시행한 굴곡형 후두내시경을 통한 하인두 및 후두관찰 소견상 역시 음주 전, 후에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음주 전, 후의 음성기능분석에서 음향지표의 변화, 후두의 변화 소견을 예상하였지만, 본 연구의 알콜농도로는 음성기능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